

사무기기의 '아이팟' 되겠다

(주)신도리코, 첨단기술력과 혁신디자인의 신제품 발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 www.sindoh.com)가 지난 4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글로벌 디자인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2011년형 신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신제품은 글로벌 디자인과 세계 특허의 기술력으로 완성됐으며 초일류 글로벌 기업 도약의 초석을 마련할 야심작으로 소개되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세계 특허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글로벌 제품

A3 레이저복합기 시장의 강자인 신도리코가 A4 레이저복합기 사업에 승부수를 띄웠다.

이날 공개한 신제품 라인업은 초소형 레이저 프린터 'A400 시리즈'와 세계 최초로 A3 기능을 탑재한 A4복합기 'M400 시리즈'. 신제품들은 A4출력이 많고 컬러 스캔 니즈가 높으며 친환경 디자인을 우선하는 시장의 변화를 만족시킨 제품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도리코 제품개발연구소의 이성훈 부장은 "신제품은 A4 흑백과 컬러 스캔, 오피스 환경 구축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콤팩트한 사이즈, 타사 제품에는 없는 기술의 독창성, 글로벌한 디자인을 컨셉으로 개발됐다"며 "총105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2년3개월 동안 7단계에 걸쳐 엄격한 품질검증단계를 거쳐 얻어진 값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400 시리즈의 경우 세계 최초 기술인 'A3 솔루션'으로 세계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스캔된 이미지를 PC나 USB에 저장하는 것은 물론 팩스로 보낼 수 있으며, A4 사이즈로 축소 복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제품은 양면 인쇄 속도를 타사 대비 20% 이상 높였고, 토너/드럼 분리 설계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해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제품 시연 및 마케팅 전략을 소개한 신도리코 김희수 부장은 "신도리코는 A4 규격과 레이저 복합기, 분당 21~40매의 속도를 최근 복합기 시장의 트렌드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글로벌 디자인을 입은 중대형 복합기 모델인 N700을 살짝 공개하고, 올해 안에 중대형 복합기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의 ‘오브제’로 자리매김할 터”

올해 라인업의 눈에 띄는 특징은 지금까지 사무실의 구석에 위치해왔던 프린터와 복합기를 사무실 중앙에 뒤편에 두는 정도로 디자인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신제품 디자인 프레임은 ‘Changing Expectations’로 정한 신도리코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조화로 현대적인 사무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고풍택 소재를 활용해 세련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단순한 기능과 동급 최소형의 콤팩트한 크기로 설계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부장은 “미적 감각을 더한 프린터와 복합기가 사무공간의 중앙으로 이동해 사무실을 보다 감각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브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신도리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디자인 그룹 탠저린(Tangerine)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

발해 지난 해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2010’과 함께 독일 ‘레드 닷 어워드 2011’을 수상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먼저 인정받았다.

이번 발표회 참석을 위해 특별히 방한한 탠저린의 마틴 다비셔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을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디자인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도리코는 최초의 디자인 컨셉을 양산 제품으로 이끄는 제반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신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리코 표희선 사장은 “신제품 라인업은 창립 이래 50여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총동원한 것으로, A4 복합기의 합리적 가격과 콤팩트한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제품 내구성과 품질력을 극대화했다”며 “세계 특허의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담은 제품들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리코가 4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글로벌 디자인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신도리코의 표희선 사장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 사무용 시장에서의 위상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품 시연 및 마케팅 전략 소개를 맡은 신도리코 김희수 부장



▶탠저린의 CEO 마틴 다비셔가 도우미들과 함께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고 있다.